끝모를 광산피해 속타는 마을주민

아스콘을 걷어내자 온통 중금속으로 형형색색 오염된 토양.

집안 곳곳에 흰색의 광물질이 곰팡이처럼 번지고 있다.

자갈밭으로 변한 논.객토한 논에 비가 내리자 자갈이 드러났다.

나주 공산면 덕음광산 인근 신곡리 주민들 대책 호소

나주시 공산면 공산화훼단지앞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이 쌓여있다. 뒷편 야산이 덕음광산이다.

비만 오면 오염수에 집 곳곳 광물찌꺼기 건강 위협

황토 사라지고 자갈밭이 된 논 등 농지복원도 허술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 인근 마을주민들이 비만 내리면 오염된 물이 흘러내린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한국광해방지사업단이 이 마을에서 흙을 덧씌우는 객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자갈이 많이 섞인 흙을 사용하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계속되는 광산피해**=전국에 작업을 멈춘 휴광산은 122곳, 폐광산은 4682곳에 달한다. 광해(鑛害)는 전국 2871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폐광산이다. 대부분 폐광산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광산지역중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의 경우 마을이 인접한데다 광산에서 나온 폐석과 광물찌꺼기를 묻은 곳 위에 집이 있어 가장 피해 우려가 큰 곳이다. 덕음광산은 금과 은을 채굴하던 곳으로 지난 1989년 채산성 악화로 문을 닫았다.

신곡리 마을은 지금 주민의 숙원인 상·하수도관 매립사업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지의 복원사업으로 한창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주민 김춘자(여·73)씨는 "지금도 집벽과 바닥에서 소금에 절인 듯 하얀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항상 감기에 걸린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목이 개운치가 않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덕음광산 주변 신곡리 1·2·3구 마을 주민들은 1㎞가량 떨어진 인근 백사리에서 나온 지하수를 끌어다 마시고 있다.

같은 마을의 조동님(여·76)씨는 "최근 인근에서 나주시가 상·하수도관 매설작업을 했는데 땅을 파자 폐석과 광물찌꺼기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차로 물을 뿌렸는데 오염물질이 마늘밭이나 농경지로 흘러내려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복원작업도 허술**=나주시는 현재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하수관과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문평면 안곡지역과 공산면 신곡리 일원 마을에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는 '신안·덕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원활해 지면 주민들의 생활 용수 걱정은 덜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농지 복원 등 후속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26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비 내린 뒤 논에 가보면 황토는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돌멩이만 하얗게 깔려있다"면서 "논에서 가끔은 어른 얼굴크기의 돌도 나온다. 비가 조금만 와도 이러는데 흙 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섞여 있겠나"고 말했다.

주민들은 광해사업 일환으로 덕음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지를 복토·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질 흙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리단 관계자는 "계속해서 돌을 골라내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농사 짓는데 이상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덕음 폐광산 지역 농지의 토양오염은 채굴 당시 사용한 약품성분 및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석·광물찌꺼기와 침출수가 흘러나와 발생한다.

앞서 환경부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0개월간 덕음 폐광산지역의 농지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은 오염된 농지의 토양을 개량 복원하기 위한 농경지휴경보상실시하고 올해 3월부터 '덕음광산 토양개량 복원사업' 공사에 들어갔다.

총 복원면적 16만4414㎡(약 5만평)에 사업비 19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복원사업은 올해 말 마칠 예정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곡리 1·2·3구 일대 농지에 대해 해마다 일부 농지를 샘플로 토양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신곡리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에 대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해 왔다. 여기에서 중금속 허용치가 넘는 농지에 벼는 시에서 전량 수매해 소각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마다 전수조사를 못 하고 지정된 샘플 농지에서만 농작물 중금속을 조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금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물 재배를 제한하고 코스모스나 조경수 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글·사진 손영철기자 ycson@

나대용함 승조원 30여명 나주 소충사 방문

해군 나대용함(함장 조환래 중령) 승조원 일행 30여명이 지난 13~14일 1박2일 동안 나주시를 방문했다.

나대용함 승조원 일행은 지난 13일 문평면 소충사를 찾아 나대용 장군 동상에 헌화·분향한데 이어, 강인규 나주시장이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해 기념품을 교환했다. 또 동신대학교 박물관 이수진 학예실장으로부터 나대용 장군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특강을 듣고 단합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해군 나대용함과 나주시는 지난 2001년 자매결연 이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오찬에서 "나대용 장군의 뜻을 이어받은 최정예 잠수함 '나대용 함'이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나주인으로서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출신인 나대용 장군은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 손수 만든 거북선을 이용해 많은 전투에 참전해 큰 전과를 올렸다. 해군은 지난 2000년 11월 8번째 건조된 잠수함을 '나대용함'이라 명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벼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

나주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가능

나주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길이 열렸다.

나주시는 "올해 벼 생육기의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량부족 등으로 인해 나주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농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벼 출수기를 전후해 벼 이삭도열병이 급격히 번지면서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해 짐에 따라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후 ▲잦은 강우 등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피해로 인정해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등숙률이 떨어진 벼 매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잠정등외 등급 설정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입 희망농가가 폭넓게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특별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는 농림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 역시 임시회를 개최해 "나주지역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벼 이삭도열병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농림부의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지난달 조사 완료한 피해농가별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대상 농가별 복구비 등을 산정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나주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3337ha(8995 농가)로, 이 가운데 4385ha(32.8%)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별로는 ▲30% 미만이 2034ha(15.2%) ▲30~50% 1650ha(12.4%) ▲50~80% 671ha(5%) ▲80% 이상 30ha(0.2%)에 달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나주시, 시민감사관 내달 3일까지 공모

나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수행을 위해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 공모기간은 20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토목과 환경, 건축, 법률, 회계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자문 등을 위해 관련 분야 교수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에 5명, 일반 분야 4명 등 모두 9명을 뽑을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은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수렴 및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역할을 한다.

지원자격은 나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회적인 덕망이나, 사명감, 청렴성 등 흠이 없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람(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 2015년 2월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텔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